大邱日報 2006년 10월 09일 003면

경북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 대구시-경북도 지원 팔 걷었다

경북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8일 경북대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 경북대 등 3개 기관은 9일 오전 총장실에서 '한의학 과학화 · 산업화를 위한 관학 협정'을 맺고 국립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유치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특히 대구 · 경북지역을 한의학 교육, 연구개발 및 산업화의 세계적 중심지로 육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 · 관 · 연 · 학 협력지원 네트워크 구축 △한의학 학문체계 확립 및 한방의 과학화 ·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의 역할과 재원 분담 △한의학전문대학원 및 병원 신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결정 등에서도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6일 '경북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 유치 지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경북대는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다른 대학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한편 교육부는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국립대 9곳 가운데 1곳을 선정,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규성기자 kydjks@idaegu.com